

# NEW SPIRIT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November 2011  
Vol. IV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  
(창 49:26)

Inho & Yeonji Park  
Faith Academy Mindanao  
PO Box 81305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nho\_park@wycliffe.org  
yeonji\_park@wycliffe.org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교회들은 10월 한달을 '목회자 감사의 달'로 정하고 온 교회가 헌신하신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곳 민다나오에 있는 교회들이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받아 일년에 한 주일을 '목회자 감사 주일 (Pastor's Appreciation Day)'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 민다나오에 오기 전까지 미국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목회자 감사 주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생소했지만,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감사하며 '아버지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회자 감사 예배'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감사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마띠 교회를 시무하시던 목사님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금년 초에 타 교회로 떠나시고, 거의 8개월동안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가운데 지역 노회내의 순회 목사님들이 교대로 주일 예배만을 인도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마띠 학원 사역과 교도소 사역에도 많은 영향이 있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제가 직접 발로 뛰며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띠 교회의 재정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재정 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마띠 교회에 부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띠 교회 교인들은 적은 사례로도 목회와 생활이 가능한 단독 목회자가 부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오랜동안 정지된 듯한 마띠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지역 노회에 속한 목사님과 마띠 교회에 대하여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교인이 40여명이 되고, 비록 재정은 연약하다고 하지만 다른 후원을 포함하면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에 비하여 목회자 사례비가 크게 낮은 편이 아닌데, 어떻게 8개월씩이나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지 않는가하고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의외의 대답은 사례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마띠 교인 중에서 그동안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아주 힘들게한 교인이 있어서 마띠 교회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는 아무도 부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띠 교회의 교인들은 오랫동안 담임 목회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점점 더 황폐해 가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고도다  
(겔 34:5)**

그런데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마침내 8개월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마띠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띠 교회 교인 모두가 재정의 부담이 적은 단독 목회자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나이는 저보다 두살이 어리지만 손자, 손녀까지 포함하여 12명의 식구로 대가족을 이루고 있는 목사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한 이후 약 3개월간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증을 마띠 교회에 준비해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띠 교회의 재정 문제보다는 마띠 교인들의 영적 치료가 더 긴급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상처 많은 마띠 교인들을 보듬고 말씀과 눈물로 힘써 기도하는 아주 겸손하고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렘 3:15)

새로운 목사님이 마띠 교회에 부임을 한 이후에 짧은 기간 이지만 각종 예배와 기도 모임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치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마띠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11월 첫주 '목회자 감사 주일' 전 토요일 저녁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초청하여 영화 상영을 통한 전도를 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토요일 저녁에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손전등을 들고 교회로 찾아 옵니다. 오랜만에 교회가 가득차고, 어린아이들로 생기가 돋습니다. 마띠 교회 설립 이후 최초의 영화 상영을 하고,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리고, 간단한 친교를 함으로 모든 순서를 잘 마치었습니다. 마띠 교회 교인 모두가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이웃들을 부지런히 섬기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너무 늦은 까닭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올 형편이 되지 못해서 마띠에서 하룻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새 날이 밝아 주일 아침을 맞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와보니, 강대상 전면이 벌써 '목회자 감사 주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의 교인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계획이 있는듯,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청년들도 하나, 둘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수줍음이 많은 사모님의 범상치 않은 큰 목소리의 찬양을 비롯해서 온 교회의 찬양이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더욱 더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3개월만에 온 교인이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 되어 있었습니다. 늘 조용하기만 했던 교회가 눈물을 뿌리며 참회하는 기도의 소리로 가득찬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한 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두들 참으로 뜻 깊은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 아픈 상처로 찢어져 있던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케 치유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선물을 드리며

그리고 집사님 한분이 앞에 나오셔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성한 자녀를 회중 앞에 앉게하고 '목회자 감사 주일' 2부 순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8개월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기억하고, 귀한 목사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감격의 시간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앞에 나와 목사님께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감사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복받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가는 교인들도 있고, 목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을 웃음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준비를 했는지 모든 교인들이 줄을 서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목사님 가족께 기쁨으로 풍성하게 전하고 진한 포옹들을 하고 들어 갑니다. 목사님의 작은 딸과 작은 아들은 기쁨과 감사함에 복 받쳐 우는 가운데, 목사님과 사모님도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

로 교회 청년들과 유년부 어린이들이 준비한 찬양과 율동으로 장장 4시간의 '목회자 감사 주일'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이곳에 혼자 떨어져 지내는 저희들은 '목회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띠 교인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시종 일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잊지 못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마띠 목사님을 통해서 마띠 교회의 교인들이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마띠 학원 사역과 교도소 사역에도 큰 힘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 13:7)

 이곳 현지인들에게는 제가 부러워하는 이들만의 아름다운 모습과 장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끈끈한 관계'가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곳에서의 가족이란 직계 가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돈의 팔촌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관계가 연결됩니다. 즉, 우리에게 친척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관계 이상을 이들은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광범위 하면서도 친밀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생일'을 축하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가족중에 누군가가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음식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도 초라한 음식이지만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일 잔치에 빠지지 않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 참석한 모든 가족들이 생일을 맞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말'을 해주는 시간입니다. 생일자를 위하여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나 케익은 없지만, 참석한 가족들이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생일자를 위하여 진심으로 칭찬과 권면과 축복의 말을 해주는 아름다운 시간을 갖습니다. 생일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정답게 축복의 말을 해주는 가족도 있고, 축복의 말을 한 이후에 따뜻하게 안아 주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충만한 사랑의 표현을 받고 나면, 마침내 생일을 당한자가 가족들을 향하여 흡족한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생일 잔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풍성한 음식과 좋은 선물로 가득한 우리의 생일 축하도 귀하지만, 따뜻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이들의 생일 축하가 너무도 보기 좋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신 12:7)**

또한 이곳 사람들의 '온유한 성품'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이곳에서 생활 하면서 현지인이 분을 못이겨 흥분을 하거나 요란하게 화를 내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 더운 날씨 때문에 낙천적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온유한 모습은 저희가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마띠 교도소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띠 교도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문에서부터 무장을 하고 있는 검게 그을린 교도관들의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삼엄한 교도소라는 이름과 달리 저희들을 보며 오랜 친구처럼 반가워하고 환영하는 모습 속에서는 위압감같은 느낌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 몸이 문신으로 덮여 있고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재소자들에게서조차도 이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재소자라는 선입견이 주는 거친 성품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50여명의 재소자 중에서 소위 모범(?) 재소자 30여명은 재소자들을 위한 식사 당번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감 생활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와 함께 자유롭게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중에는 저희와 함께 자리를 해서 특별 찬양을 하는데 수감자와 저희 일행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여유가 있습니다.



마띠 교도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면 수감자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기뻐할까 하는 일들에 대하여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예배 후에 재소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번갈아 가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애찬이 없는 친구, 선물이 없는 성탄절등을 상상할 수 없듯이, 이 곳 재소자들에게도 예배후에 선물이 없다는 것은 이들을 너무도 크게 실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비하는 일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선 가격을 고려해야 하고, 모든 재소자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수량을 고려해야 하고, 재소자들 중에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하고, 또한 교도관들도 저희의 중요한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넉넉하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재소자들은 전해주는 물품을 받고 감사해 하면서도 조심스럽고도 부끄럽게 저희에게 아쉬움을 이야기 합니다. 세수 비누를 전해 주면, 빨래 비누가 필요하다고 하고, 현지어로 된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 라면과 같은 것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작년 성탄절에 선물로 나누어 주었던 신발을 보여주며, 많이 낡았다고 확인까지 시켜줍니다. 재소자들에게서 혹시 있을 법한 위압감이나 거들먹 거림이 전혀 없는 저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드러운 표현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 교도소까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눈에는 모두들 온유하고도 평범한 우리집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 같이 보입니다.

이제 모두들 기다리는 12월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든 재소자들의 필요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재소자들이 하나님께서 이곳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온유한 성품을 따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약 1:21)**



감사합니다.

기도 요청

- 해변교회, 마띠 교도소 / 학교의 성탄절 준비를 위하여
- 마띠 고등학교의 건축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 차량 구입을 위하여
- 단기 선교 준비를 위하여
- 흩어져 있는 자녀와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 (마 24:14)**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